



“원정(苑淨) 대성사 유지(遺志) 계승, 종단중흥”

창종조 원정 대성사 29주기 멸도절 법회 봉행



▲ 9월 8일 봉행된 제29주기 종조 멸도절 추선법회.

충지증 창종조 원정 대성사 열반 29주기 멸도절 추선법사가 9월 8일 서울 충지사 원정기념관을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봉행됐다.

효강 종령예하는 “우리 종도들은 창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말법시대의 무명을 밝히는 보살이 되어야 한다”며 “창종 초창기의 대신심과 추진력으로 종단 중흥을

위해 전심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승 통리원장은 “오늘 멸도절을 맞아 법흥포의 대원을 부촉하신 대성사님의 큰 뜻을 되새겨야 한다”며 “종조님께서 제창하신 재생의세의 정신으로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충지증을 만들기 위해 용맹정진하자”고 말했다.

원정 대성사 열반 29주기 멸도절 추선법사는 헌화 및 훈장정공, 추선사, 종조 육성법문, 참교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통밀교종단 충지증을 창종한 원정 대성사는 1907년 1월 29일 경남 밀양군 산외면 다죽리에서 탄생했다. 본관은 일직(一直) 손(孫)씨, 속명은 대련(大鍊)이다. 대성사는 1980년 9월 8일 원적에 들기까지 해방 이후 한국에 ‘밀교’라는 용어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충지증과 진각종의 산과 역할을 하며 한국 현대밀교사 수립에 결연한 역할을 했다.

원정 대성사는 창종 초기의 교리와 행정적 착오를 개선하고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업을 비롯하여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 확립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함께 흥분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충지사를 비롯해 전국에 사원을 건립하고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전력했다.

대성사는 〈종조법설집〉을 비롯하여 충지증소의경정인 〈대승장엄보왕경〉,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번역 발간하였고, 대장경의 핵심을 집대성한 〈불교충진〉을 편찬하기도 했다.



▲ 8월 25일 경북 울진에서 열린 제8회 경로법회에 운집한 스승과 교도.

제8회 경로법회 원만 회향

경로효친 사상 선양, 교도 유대 강화

불교충지증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경북 울진 백암 한화콘도에서 제8회 경로법회를 개최했다. ‘부처님 세상 행복하루’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경로법회엔 전국 각 교구 어르신과 스승, 교도, 자원봉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경로법회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입제식과 노래 경연대회, 각 사원 장기 자랑, 저녁 정중, 연예인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이튿날엔 온천욕과 회향식, 관불이 이어졌다.

효강 종령예하는 “장수하고 불법을 만나 수행하는 것은 큰 복”이라며 “나와함께 이웃을 불법으로 섬수하여 행복이 가득한 불국토로 성취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승 통리원장은 “이번 경로법회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고 행복, 산업화로 메달라 가는 가족 사랑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경로법회에 참석했다는 경남 밀양 밀행사 권영순 어

르신(81)은 “종단에서 경로잔치를 마련해 주어 즐겁고 흡족하다”며 “법회에서 각처에 흩어져 지내던 도반들을 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불교충지증 경로법회는 전국 각 사원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공양과 함께 다양한 위로 공연을 열어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전국 사원과 교도 간 결속을 다지는 행사이다.

=울진 윤우재 기자
<관련화보 12면>

“인간 방생으로 보살도 실천”

서울경인, 부산경남교구 복지재단에 성금 전달



▲ 서울경인교구 각 사원 스승과 신정회(회장: 김은숙), 부산경남교구 신정회(회장: 신인록)는 8월 26일 경로법회 회향식에서 하반기 49일 회향 방생법회 모금 성금을 불교충지증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승)에 전달했다(사진 위: 서울경인교구, 아래: 부산경남교구). 충지증은 ‘인간 방생’이라는 취지에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과 물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종조법설

현세정화가
내세극락

현세정화(現世淨化)가 곧 내세극락(來世極樂)이 되는 것은 운회(輪廻)하여 다시 태어나는 까닭이다. 속세(俗世)를 구제하지 못하면 극락도 없다. 이것이 대승(大乘)이다. 영불왕생(念佛往生)보다도 자신이 실천하고 남을 지도하는데 주력하라. 이것이 성불이요, 복덕이 그 중에 있는 것이다.

신정회 후원, 충지불교교양대학 재개

충지불교교양대학이 9월 9일 제4차 교육을 개강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80분 동안 근본불교를 중심으로 불자로서의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고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교육은 교실에서의 수업 위주를 벗어나 유적지나 박물관 탐방, 영화 감상, 독서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생활 가운데서 불법을 실천하는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현대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적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불법에 바탕을 둔 교양인이 되는 것을 수 업목표로 하고 있다.

충지불교교양대학은 그동안 여름철을 맞이하여 두 달간의 방학기간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신정회 서울지부 지회장 김은숙 보살 등 간부진의 열의로 다시 힘찬 출발을 하게 되었다.

김은숙 보살은 그 동안 충지불

교교양대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왔는데 우리 종단의 교도들도 수행정진 뿐만 아니라 불교와 문화적 교양을 쌓아 계, 정, 해 삼학을 두루 갖춘 훌륭한 불자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지불교교양대학이 현재의 교리공부 위주의 단조로운 수업 방법을 지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자신과 신정회는 앞으로도 충지불교교양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장동욱 교무 (552-1080, 508-8933)

10면 기고 / 행복한 하루, 맑게 누리세요~

11면 영화에서 불교보기 / 키크름 들다

12면 화보 / 경로법회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 29주기 멸도절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密敎)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 중흥의 견인자 역할을 하시고, 의례(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 밀교종인 충지증을 창종 하셨습니다.

원정 대성사(苑淨 大聖師) 29주기 멸도절을 맞는 우리는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대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 합니다.



사설

종조 멸도절에 부쳐

「1980년 9월 8일 밤 11시30분, 총지종의 창종주이자 한국 불교의 종종주이신 종조(宗祖) 원경(元景) 대성사께서 세전 74세의 일기로 사바세계를 뒤로 하고 열반의 피안으로 떠나셨다.

9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 본산 정원에는 전국에서 모인 승단과 교도 그리고 내빈들이 운집한 가운데 영결식을 엄수하였다. 장의행렬은 끝을 찾아 볼 수 없었고 종조님의 육신은 영원한 반열반에 드시어 사리(舍利)를 남기시었다. 수습하여 본산 총지사 서원당 청호실(淸湖室)에 봉안하였다.

교사(敎主)에 기록되어 있는 종조 원경 대성사의 열반 내 용이다. 종조님께서 열반하신 날을 멸도절(滅度節)이라 한다. 열반을 기리는 불사를 일러 '종조 멸도절 추산불사'라 이른다. 1981년부터 매년 9월8일에 봉행하여온 '종조 멸도절 불사'가 올해로서 29년째가 된다. 당시 열반 1주기 추산불사(追善佛事)는 총지사 서원당에서 서울 시내 각 사원 서원당 스승 및 교도 다수가 참석하여 가운데 봉행되었다.

그로부터 29년이 흘렀다. 적지 않은 세월이다. 창종한지 어언 38년이 되는 해이다. 종조멸도절을 맞이하여 추모의 정과 함께 만감이 교차한다. 올해의 종조 멸도절 추산불사가 예년과 달리 무거운 중압감 같은 것이 느껴진다. 중단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여 왔으며, 밀교종흥과 종생제도를 창종정신과 종조님의 유훈을 얼마만큼 받들어 왔는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종조멸도절(宗祖滅度節)은 종조께서 열반하신 날로서 추모의 불공을 올리는 날이다. 종조님께서 육신을 버리고 열반적정에 입멸하셨기에 이 날을 '멸도절(滅度節)'이라 정하고 매년 9월 8일에 멸도절 추산불사(追善佛事)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조멸도절이 단순히 열반하신 종조님을 추모하며 추산불사를 올리는 기념일뿐만 아니라 그치는 안된다.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매년 멸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늘 종조님을 추모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고 용맹정진과 분발을 다짐한다. 지난 해에도 그러했고 금년도에 그러하며 다음해에도 그러할 것이다. 물론 추산의 열이 있어야 함은 법제도의 토대로서 마땅한 것이나 그것이 일과성으로 그치면 종조님의 유훈은 생명력을 잃어 갈 것이고, 종단발전과 밀교종흥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종조멸도절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불사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종단의 사대절(四大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종조님을 기리는 불사들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종조탄신일(1월29일), 종조멸도절(9월8일), 성도절 및 창교절(12월24일)을 연계하는 기념 불사와 문화, 수행, 학술 등 다방면에 걸쳐서 추모사업들을 전개시켜나가기로 할 것이다. 새대 성지를 정비하고 성역화하는 작업 또한 늦추어서는 안된다. 당장의 실행은 어렵다 하더라도 준비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적인 청사진 마련을 위해서 승단과 종도들이 중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발전을 위한 성장발판은 준비되어야 불가능한 것이다. 노력과 준비가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종조절을 기리는 추산(追善)과 추모(追慕)의 불사가 되는 길이다.

육신(肉身)은 떠나도 법(法)은 남는다. 종조님은 열반하셨지만 그 법은 유구히 흐르고 있다. 그 법과 유훈을 이어 받아 명실상부한 한국밀교 대표종단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자 후학들의 의무인 것이다.

원송 통리원장 등 불교지도자, 김 前 대통령 조문

영결식서 불교 추도의식, 극락왕생 발원



불교총지종 원송 통리원장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불교지도자들이 8월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불교지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반야심경 등을 독경한 뒤, 김집업지 등 유족들을 위로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스님은 "남북의 길목을 확실하게 터주고 평화의 미래를 내다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하고 이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성취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문에는 총지종 원송 통리원장,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불교인 권위원장 진관스님 등 각 종단 대표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사무원장 혜일 스님 등이 8월 19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 마련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지관 스님은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인 김 前대통령이 오래 사서 함께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분이고, 국가적 위기였던 IMF의 시련을 뚫은 사람

화령 정사, BBS 논평위원회 위촉

화령 정사(중앙교육원장/철학박사)가 금년부터 2011년 말까지 3년간 불교방송 논평위원에 위촉되었다.

화령 정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진행되는 불교방송의 뉴스와 드라마 시간에 출연하여 시사문제에 대한 논평을 하게 된다.

사회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불교방송논평위원단은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을 지니고 중도적 입장에서 시사문제에 대한 논평을 한다.

불교적 입장에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것으로 타 방송의 논평과 차별화 된다.

종단 원의회 의원 선임

한편, 화령정사(중앙교육원장)는 7월 27일자로 원의회 의원에 임명되었다.

원의회는 종단의 집행부를 중심으로 하여 주요 종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다.

진언수행의 길

밀교종단인 총지종은 삼밀수행을 기본 수행법으로 삼고 있다.

삼밀수행이란 몸과 입과 뜻의 삼밀(三密 - 신밀, 구밀, 의밀)을 상응가지하여 행하는 수행이다.

신밀(身密)이란 신체상의 행위와 활동이며, 구제적으로 인계(印契)를 말한다.

구밀(口密)이란 언어상의 행위와 활동

행과설을, 가르침대로, 법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진언이며 구밀이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 넓고 크고 동근 마음으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참다운 삼관상법심(三觀想法)이며 의밀이다.

문수불경계경(文殊佛境界經)에서는 삼밀을 여덟가지 법으로 닦아야 청정함을 얻는다고 했다.

삼밀수행(三密修行)

1. 항상 조용한 곳에서 고요하게 사유(思惟)하는 것
2.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서 말하지 않는 것.
3. 밖의 경계(境界)에 탐착(貪著)이 없는 것.
4. 몸과 마음에 모든 영화와 좋은 것을 버리는 것.
5. 음식에 욕심이 적은 것.
6. 대경(對境)에 의지하는 곳이 없는 곳.
7. 음성(音聲)이나 문자의 수식(修飾)을 즐기지 않는 것.
8. 남에게 가르쳐서 성스러운 낙(樂)을 얻게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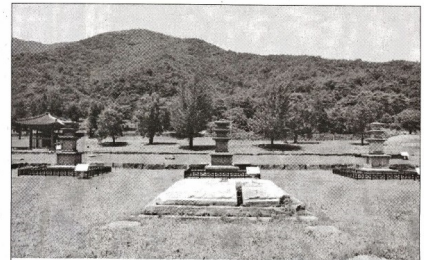
이며, 구제적으로 진언다라니(眞言陀羅尼)를 말한다.

의밀(意密)이란 정신상의 행위와 활동이며, 구제적으로 관법(觀法)을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삼밀은 입으로 진언을 외우고 몸으로 결인을 맺고 뜻으로 관법을 행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즐겁게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인계이며 신밀이다.

또 남에게 좋은 말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등 불교에서 살고 있는 모든 수



천 년을 거슬러 간다. 무량한 세월 속 선문산 蓮門九山の 정경한 윤곽이 드러 온다.

직지인심 直指人心 견성성불 見性成佛 - 보령 성주사지

성주사지(聖住寺址) :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 소재 통일 신라시대 때 절터. 통일신라말 당대 사상계를 주도한 구산선문 중 성주산파의 중심사찰.

창기 38년 승직자 보수교육

총지종은 9월 17일부터 ~ 25일까지 승직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보수교육은 효강 종량님의 정신훈화 및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방향정립과 불교사회복지, 불교상담심리 등에 대한 강좌로 구성된다.

- 1차 : 충정·정리교구 9월 17일~18일(장소 : 백월사)
2차 : 부산·경남, 대구·경북교구 9월 22일~23일(장소 : 정각사)
3차 : 서울·경인교구 9월 24일~25일(장소 : 총지사)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2009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천사	윤 찬	8/17	10,000
개천사	무명씨	8/27	5,000
개천사	이희권	8/28	10,000
관성사	박진화	8/19	10,000
관성사	조정숙	8/26	10,000
관성사	해경행씨	8/26	20,000
관성사	박현숙	8/26	10,000
관성사	황선녀	8/28	10,000
관성사	김봉기	8/31	10,000
기로원	대관	8/24	10,000
기로원	대자행	8/24	10,000
기로원	밀공정	8/24	10,000
기로원	박수원	8/24	10,000
기로원	법정화	8/24	10,000
기로원	법지원	8/24	10,000
기로원	불멸심	8/24	10,000
기로원	사홍화	8/24	10,000
기로원	상지화	8/24	10,000
기로원	수준원	8/24	10,000
단음사	법연지	8/27	5,000

밀인사	이재갑	8/10	20,000
밀인사	이희원	8/12	10,000
밀인사	원당	8/17	10,000
밀인사	표심해	8/17	10,000
밀인사	이희임	8/23	100,000
밀인사	이연수	8/31	10,000
밀인사	정정화	8/31	5,000
밀행사	신정희일동	8/4	150,000
법성사	신정희일동	8/3	50,000
법성사	차영희	8/3	50,000
법천사	김경숙	8/4	5,000
법천사	시정	8/24	0,000
법천사	원만원	8/24	10,000
벽통사	이희숙	8/05	10,000
백월사	류승태	8/26	10,000
백월사	박인국	8/27	5,000
백월사	박인철	8/27	5,000
삼밀사	유귀원	8/14	30,000
삼밀사	인범계	8/14	10,000
삼밀사	원송	8/14	10,000

선림사	심지장	8/17	10,000
선림사	정복지	8/17	10,000
선림사	황귀석	8/17	10,000
성화사	유담배리회	8/17	50,000
수인사	장영택	8/6	50,000
수인사	공경원	8/6	10,000
수인사	김봉기	8/27	10,000
수인사	한애숙	8/27	20,000
시범사	윤혜린	8/21	20,000
시범사	진여행	8/27	10,000
실보사	이순옥	8/06	5,000
실보사	이순옥	8/21	5,000
실지사	정경자	8/28	5,000
실지사	이숙자	8/31	10,000
승천사	지선행	8/03	30,000
승천사	김원봉	8/03	30,000
운천사	이성미	8/24	50,000
운천사	김성수	8/31	30,000
운천사	반이화	8/31	20,000
운천사	정태호	8/31	5,000

자석사	무명씨	8/27	20,000
정각사	구정희	8/13	20,000
정각사	김문수	8/28	10,000
정각사	윤선자	8/31	10,000
정성사	박옥란	8/31	20,000
지인사	연동원	8/19	10,000
지인사	허성동	8/25	20,000
총지사	유성열	8/04	10,000
총지사	최혜선	8/20	20,000
총지사	이인성	8/31	30,000
총지사	홍지희	8/31	10,000
총지사	홍연주	8/31	10,000
통리원	지정	8/24	20,000
화음사	무명씨	8/27	10,000
	류재환	8/24	10,000
	무명씨	8/26	10,000
	박성준	8/21	10,000
	박말조	8/24	5,000
부산경남지회		8/28	2,000,000
서울경기교구회		8/21	4,000,000

이숙남	8/12	30,000
유복근	8/20	30,000
이혜성	8/21	20,000
이갑진	8/25	10,000
안효정	8/27	20,000
임동수	8/28	30,000
이혜원	8/31	5,000
(취산바)	8/31	100,000
최영례	8/14	10,000

후원의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로 소속사원명을, 통신판로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풍경소리

대문과 나귀만 지킨 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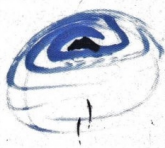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하인에게 당부했습니다.
"너는 문을 잘 지키고 나귀와 밭줄을 잘 살펴라."
주인이 떠난

뒤 동네에서 풍악놀이가 있었는데, 하인은 구경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뜯어서는 나귀 등에 엮고 놀이터로 가서 그 풍류를 즐겼지요. 하인이 나간 뒤에 도적이 와서 집안의 재물을 모두 훔쳐가 버렸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재물은 모두 어쨌느냐?" "저에게 문과 나귀와 밭줄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문경자(술 해설사)

첫 마음 돌아보기



개미가 제법 큰 빵조각을 옮기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굴러도 일어나 험이 가는 중입니다.

개미는 무거운 짐 끌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마도 처음 마음먹은 그 자리일 겁니다. 다들 첫 마음에는 결연한 의지와 목표를 담습니다. 누리고 싶은 행복의 씨앗도 함께 넣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첫 마음이 변한 건 아닌지 한번쯤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규태 / 시인

황소를 소매치기 당하다

소를 몰고 집으로 가던 한 농부가 있었다. 농부는 길에서 귀한 가족신 한 짝을 보았다. 한 짝으로는 슬모가 없기에 멀리 던져버렸



한참을 더 가다 이번엔 이미 던져버린 가족신의 다른 한 짝을 줍게 되었다. 한동안 망설이던 농부는 소를 길옆 소나무에 단단히 매어놓고

헬레벌떡 뛰어갔다. 이때 수상쩍은 사내 두 명이 얼른 길가 소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가족신 한 결레를 다시 주운 그는 황재한 생각에 날듯이 돌아왔지만, 황소는 이미 없어진 뒤였다. 눈앞의 작은 욕심과 말재주꾼들에게 속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여 이리 많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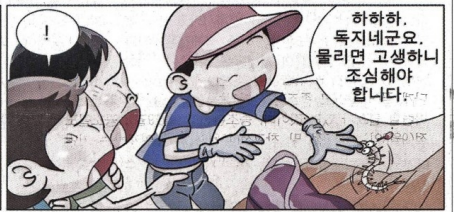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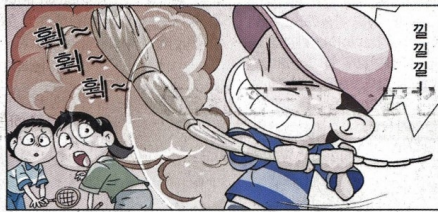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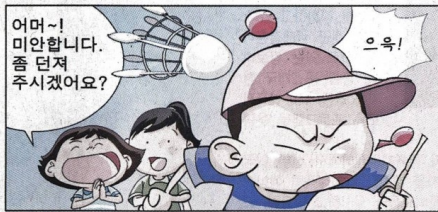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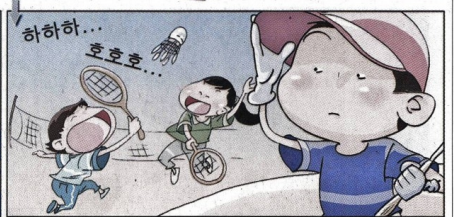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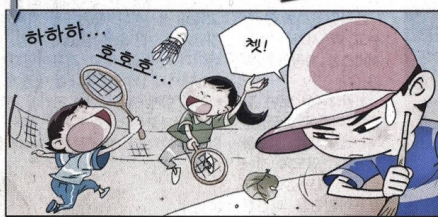
이정우(군속법사)

VISUAL 불교종전

제3화

부정적인 마음의 경우

긍정적인 마음의 경우



이달의 명상 왜 정진력을 길러야 하는가?



도를 배우려면 무엇보다도 신근(信根)을 갖 추어야 하고, 이를 정진력(精進力)으로 보고 나아가 한다. 이렇게 하고도 성취하지 못한 자는 여지껏 본 적이 없다. 신근(信根)은 경쾌한 배에 견줄만한 정진력(精進力)은 체력과 같다. 뱃대를 경쾌한 배에 더한다면 물의 역순(逆順)은 상관할 바가 되지

고, 준마에 체력질을 한다면 길이 평탄하고 험난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요즈음 사람들을 보면 신근을 갖춘 자가 없지는 않으나, 정진력으로써 시작과 끝을 알리지 못하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정진을 하루라도 안하게 되면 게으름이 붙어 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산방이차-

고창 최고의 복분자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온 가족이 직접 재배부터 제조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 효능 · 효과 -

- *치매 증후 예방 및 치료
- *항산화 효과·산화질소 생성 억제로 노화예방 (비타민C보다 5.2배 이상 효과)
- *관절염 치료 예방과 오줌소태, 방광계통 치료
- *위장 질환 치료예방(위궤양, 심이장장)
- *장내 유해세균 억제
- *항암효과(미숙과에서 특효를 보임)
- *탈모방지, 발모촉진
-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 및 정력강화

- 서울대,경희대,전북대,원광대 연구발표 -

* 가격: 복분자 엑기스 ₩45,000 복분자주 ₩30,000 * 2명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주문전화: 063-564-4230 018-603-4230



만다라의 복지세상 12

다문화가족에 맞춤형 서비스 강화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뚜렷한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는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이미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이는 국내 전체 거주 인구의 2%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 결혼이주여성도 18만명, 외국인 근로자는 40만명 등으로 나타나 우리사회는 이미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2005년의 경우 국제결혼이 총 43,121건에 달해 전체 결혼 건수의 13.6%를 차지하는 등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국민의 구성원적 특성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시키고 있는데, 코시안(Kosian), 은누리인들 이들 국제결혼가정과 국내거주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을 칭하는 신조어가 다.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님을 경험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지역으로 부터 탈출한 새터민의 증가와, 규탄의 해외이민으로 인한 해외거주 동포의 증가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로의 진입으로 인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국제결혼 증가로 늘어난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 교육과 취업능력향상 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를 △임산기 결혼준비기 △가족관계 형성기 △자녀양육기

△역량강화기로 나누고 각 시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내용을 보면 결혼 전 여성이 한국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난 필리핀,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해 상담과 사전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캄보디아, 몽골 등 2개국 현장에 콜센터 및 임산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9월 시행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 연계를 맺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2010년까지 14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등록·관리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윤리의식

국내 인구 20%인 100만명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위해 집합교육과 한국어 방문교육지도사가 방문하는 방문교육을 병행하며, 한국디지털대학 및 방송사와 협력해 온라인 교육 및 방송교육(IPTV)을 활성화하고 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등 5개 언어로 된 잡지 '레인보우'를 발간해 결혼이민자들이 각종 생활 및 정책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1,600명의 아동 양육지도사가 다문화가족을 방문해 자녀양육방법을 교육하고 아동보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다문화특성화 보육시설을 매년 5개소 지정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아동에게 보육교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농기술교육을 비롯, 정보 교육 등 다양한 취업능력향상



-지문(사회복지재단 사무국)

총기증보

생리가 몇 달 동안 나오지 않는다면...

무월경의 증상 및 치료



조선화 원장

(여성미의원)

생리이다. 정상적인 생리주기는 25-35일을 전후로 나타나며 임신 여부를 위한 기본 과정임과 동시에 여성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심한 스트레스, 다이어트에 대한 지나친 압박관념에서 비롯된 정신적 요인과 비만, 호르몬 이상, 자궁 및 생식기 질환에 따른 신체적 요인 등 어떤 이유로 인해서 월경의 체외 배출이 결여된 상태를 무월경이라 하며, 한의학에서는 이를 '경폐'라고도 한다. 출산후의 신체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수개월간 일시적으로 호르몬 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정상적 의미의 무월경을 제외하고는 근본적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월경의 주된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이다. 또한 배란이상으로 인한 자궁주위의 염증, 몸의 허약으로 인한 심한 빈혈,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자궁과 난소의 혈류부족과 혈액이 자궁안에淤체되어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보통은 이러한 증상이 몇 달간 지속되다가 회복되지만 간혹 6개월 또는 1년이상 장기간 무월경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속히 원인을 파악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

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요즘같이 다이어트란 의미가 친숙할 정도로 보편화된 일상생활에서 젊은 여성들이 완벽한 S라인 몸매를 위해서 심하면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 및 폭식증 때문에 남모름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무월경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월경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고 14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나 2차 성징이 있지만 16세까지 초경이 없는 경우 원발성 무월경이라 하고, 정상적인 월경을 하던 여성이 6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경우를 속발성 무월경이라 한다. 한의학에서는 무월경 즉 경폐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혈결경폐, 혈체경폐, 독신녀경폐로 나누어지는데 이 가운데 독신녀경폐는 환경, 심리적, 정신적 요인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혈결경폐 - 혈액이 고갈되어 오는 증상. 자궁근종, 자궁내막증식증 등에 의한 과다출혈, 출산 경험 많은 여성, 심한 노동, 과식, 폭식으로 비장이 약화되어 발생.

혈체경폐 -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경우. 폐경기기에 찬 기운이 자궁에 침입, 과도한 기름진 식사로 인한 신진대사 장애 등으로 발생.

독신녀경폐-수녀, 비구니, 독신여성에게 발생. 감정발산의 제도로 인해 사회의 기운이 통하지 않음.

경소로 여성의 특권이자 권리가 생리현상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무월경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성 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최선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죽비소리

삼동 때문에 도를 보지 못함

물이 그림자를 잘 내려놓지만 만약 기마술에 뛰어넘고 불을 지피 물을 끓일 때나, 또는 그 위에 배를 얹으면 사람들이 돌려다 보아도 그 그림자를 볼 수 없다. 중생도 이리하여 마음 가운데 삼독(三毒)이 본래 있어서 안에서 끓어오르고 탐욕(貪慾), 진애(嗔?), 도거(捨擧), 수면(睡眠), 의심(疑心) 등의 오계(五蓋)가 밖에서 덮으면 도를 보지 못한다. (사십이장경 四十二章經)

알림

▶ 9월 8일은 제29주 종조열도절입니다.
▶ 서울경인교구 합침단 연수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통일 2층에서 열립니다. 참가문의는 02)552-1080 이문수 단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 총기보교양대학이 매주 수요일 2시 총기문화센터 강의실에서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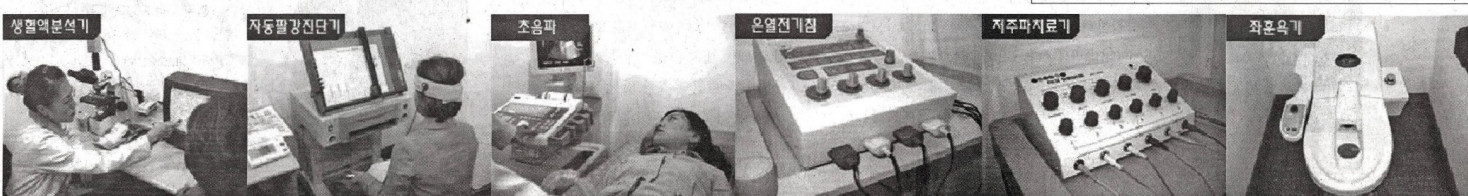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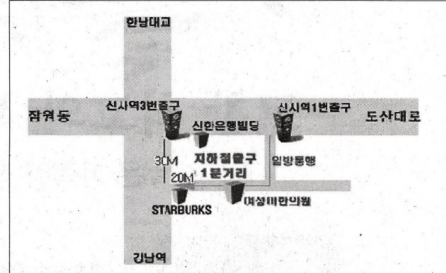
자경단(子經丹)
출산전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불임 자궁어혈 제거

여성美한의원

-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자궁근종, 질염, 난종,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불임, 임신오제(임태),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질환: 요방(자경단, 요실금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 비만 클리닉
 - 여성: 자궁 다이어트
 - 남성: 복부 다이어트
- ▶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 한지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 진로시간
 - 평 일: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 말: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든 물어보세요" KBC-TV "전문의 상담"



지상월법

정사유(正思惟)-바른 생각이란 무엇인가? (下)



화령

(종교교육원장, 철학박사)

▶ 생사 초월 → 출리각

우리는 태어난 순간에 이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언제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자신을 스스로 괴롭힙니다. 우리가 생사를 벗어나겠다는 것에 대해 바른 사유를 한다면 삶에 대해 그처럼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출리각이라는 것은 곧 생사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생사를 초월할 때에 오히려 삶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생사의 틀을 크게 보고 탐욕을 떠나며 관능의 향락을 멀리하는 것이 세속의 바른 사유인 출리각입니다.

▶ 화 내지 않음 → 무애각

삼선각에서 두 번째로 성별이 없는 무애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사유를 한다는 것은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바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별이 없는 생각을 세속의 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바른 사유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평정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사물이 바르게 보이는 것이지 내 마음이 성냄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바른 생각이 자리를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맛갈에 어저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사유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나는 것 때문에 큰일을 저지릅니까? 화가 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원한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벌이

가 되어서 더 끔찍한 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욕심나는 것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것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화의 근원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자기의 탐욕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는 것이지 부처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에 착한 사람만 남고 나쁜 사람은 다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는 마음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떠나있으므로 화낼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사유하면 무엇이든지 바르게 보입니다. 바둑이나 정기를 볼 때 뒷전에서 구경하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른 사유라는 것은 해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해서 바른 생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의 이익만 앞서는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무엇이든지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유해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한없는 자비심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면을 넘어서 남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자신의 행복은 자질로 찾아질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의 행복도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높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고도 행복하지 못했던 록펠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살았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자신도 행복했다는 이야기가 이런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사를 초월하겠다는 생각인 출리각, 화를 내지 않겠다는 생각인 무애각,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생각인 불해각은 비록 세속의 번뇌와 집착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지만 우리들 선행으로 이끄는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정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견과 마찬가지로 정사유는 팔정도 가운데서 우리의 지혜의 면을 말한 것입니다.

팔정도 중 '지혜의 측면' 설한 것

생사를 초월하겠다는 초연한 마음을 가지면 탐욕을 부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허물어지는 세상 이치 가운데서 자기 것이라고 고집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 이치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탐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를 범으로써 모든 일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욕심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의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만나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불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해서 극락정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나의 내면의 세계가 변함으로써 세상이 달리 보이

면 더 잘 보이는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정한 마음으로 사유하면 더 현명하고 바른 사유가 됩니다. 어떤 대상에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바른 사유를 하는 데에 있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애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 남 해치지 않음 → 불해각

다음으로 불해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자비에 바탕을 둔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사유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때리고 욕하고 살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해치려는 것은

행*과 합하의 모래만큼 많은 공덕이 모두 갖추어져 다시 더 닦거나 보탬이 없는 것입니다. 인연을 만나면 곧 따르고 인연이 없어도 곧 고요하다. 이 부처를 믿지 않고 상에 집착하여 수행하며 그것으로 공덕을 삼는다면, 이런 것은 모두가 망상이고, 도(道)와는 크게 어긋난다. 이 마음이 곧 부처요 다시 다른 마음이 없다.

◇ 삼독

"진여불성(眞如佛性)의 모든 공덕은 개침이 근본이 된다는 것은 알았으나 무명인 마음과 온갖 악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습니까?"

"무명인 마음에는 팔만 사천의 번뇌와 정욕이 있어 악한 것들이 한량없으나 그 모두는 삼독(三毒)이 근본이다. 삼독이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인데, 이 삼독에는 저절로 모든 악한 것이 갖추어져 있다. 마치 큰 나무가 뿌리를 하나이나 가지의 수없이 많은 것처럼, 삼독의 뿌리는 하나이지만 그 속에 한량없는 많은 악업이 있어 무엇으로 비교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삼독은 본체에서는 하나이나 저절로 삼독이 되어 이것이 육근(六根)에 작용하면 육작(六賊)이 된다. 육작은 곧 육식(六識)이다. 육식이 육근을 드나들며 온갖 대상에 탐착심을 일으키므로 악업을 지어 진여를 가리게 된다. 그러므로 육작이라 이름한다. 중생들은 이 삼독과 육작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생사의 구렁에 빠져 육도(六道)에 윤회하면서 온갖 고

통을 받는다. 이윽고엔 강물이 원래 조그마한 샘물에서 시작하여 끓이지 않고 흐르면 시내를 이루고 마침내는 만경 창파를 이루게 되나, 어떤 사람이 그 물줄기의 근원을 끊으면 모든 흐름이 다 쉬게 된다. 이와 같이 해탈을 구하는 사람도 삼독을 돌이켜 삼취정계(三聚淨戒)를 이루고, 육작을 돌이켜 육바라밀(六波羅蜜)을, 이르면 저절로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삼독과 육작이 광대 무변한데 마음을 보고 어떻게 한없는 고뇌에서 벗어나 볼 수 있었습니까?"

"삼계에 태어남은 오로지 마음으로 되는 것이니 만약 마음을 깨달으면 삼계에 있으면서 곧 삼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삼계라는 것은 곧 삼독이다. 탐내는 마음이 욕계(欲界)가 되고, 성내는 마음이 색계(色界)가 되며, 어리석은 마음이 무색계(無色界)가 된다. 삼독심이 갖가지 악을 짓고 맺어 업을 이루고 육도에 윤회하게 되니 이것을 삼계라 한다. 또 삼독이 짓는 무겁고 가벼운 업을 따라 과보를 받는 것도 같지 않아 여섯 곳으로 나뉘게 되니

이것을 육도라 한다. 그러나 악업은 오로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거둬 그릇되고 악한 것을 버리면 삼계와 육도를 윤회하는 괴로움은 저절로 소멸되고,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 이것을 해탈이라 한다." (달마관심론 達磨心論)

*삼취정계: 부처님이 제정한 규칙을 지켜 악을 막는 섭음의계(攝律儀戒),

며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이름과 말과 자취와 관계를 초월한 본체가 곧 마음이다. 여기서의 자취생각만 움직여도 벌써 어긋나는 것이니, 마치 허공과 같이 끝이 없으며 짐작이나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요, 이 한 마음이 곧 부처이다. 부처와 중생이 결코 다를 것이 없지만, 중생들이 상(相)에 집착하여 밖을 향해 부처를 찾으니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이 마음은 허공처럼 맑고 깨끗하여 한 점의 모양도 없다. 만약 한 생각이라도 움직인다면 곧 법체(法體)와는 어긋나며 상에 집착하는 것이니, 일찍이 이와 같은 상에 집착한 부처는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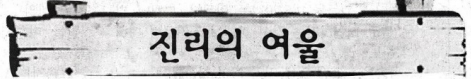
었다. 또한 육도만행을 닦아 성불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곧 점차로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니 점차로 된 부처도 없다. 다만 한 마음만 깨달으면 다시 더 얻을 아무 법도 없으니 이것이 곧 참 부처이다.

부처와 중생은 이 한 마음 뿐이요 조금도 다르지 않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더럽히거나 무너뜨릴 수 없으며, 해가 온 세상을 비취 밝히려 할 때 퍼지더라도 허공은 일찌기 밝은 일이

없고, 해가 저서 어둠이 천하를 덮더라도 어둠이 없다. 밝고 어둠이 뒤바뀌더라도 허공의 성질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니,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이와 같다. 부처를 생각할 때 청정한 광명과 자재 해탈의 거룩한 모양으로 보고, 중생 보기를 때론 어둡고하고 생사에 시달리는 혼탁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무량겁을 지내도록 수행해도 끝내 도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에 집착해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에는 다시 탈골 만한 것이라도 얻을 것이 없으니 마음이 곧 부처인 까닭이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본체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을 일으켜 밖을 향해 부처를 구하러 상에 집착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것은 모두가 그릇된 방법이고 보리도는 아니다. (黃蘗傳心法要)

*육도만행(六度萬行): 육바라밀의 실천수행.

*黃蘗: (?~850) 당대 남양 아래에서 수행하던 선승. 백장 회해를 스승으로 삼고, 황백산에 살면서 중풍을 드날렸다. 문하에서 임제 배출.



진리의 여울

자진해서 착한 일을 하는 삼선법계(三善法戒), 중생을 교화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힘쓰는 선행생계(攝衆生戒).

◇ 부처란 마음이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의 본체는 한마음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은 시작없는 옛적부터 나고 죽는 것이 아니고, 푸르거나 누른 것도 아니

않게 된다. 스스로 부처이면서 다시 부처를 찾고,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잡으려 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두고 몸이 다하도록 애써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오직 생각난 뒤면 부처가 스스로 앞에 나타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는 곧 중생이니, 이 마음은 중생이 되었을 때도 줄지 않고 부처가 되었을 때도 늘지 않으며, 육도만행(六度萬

서 초 실 버 의 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있습니다.

김정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로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의과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 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시간

평일(토):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02-575-1850 Fax: 02-575-8275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상기식운 밀교상식<27>

제재초복(除災招福)과 성불

밀교를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밀교에 대해서 가지는 인상은 여러 가지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 인 것으로는 밀교라고 하면 대체로 주문(呪文)을 외음으로써 무엇인가 신비한 힘을 얻거나, 혹은 이러한 힘에 의하여 자기 목적인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미신적인 방편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다. 말하자면 밀교의 심오한 철학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주술적인 방편에 의하여 현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종교의 한 형태로 본다는 것이다. 밀교를 피상적(皮相的)으로 본다면 이러한 면이 얼마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밀교에서도 밀교의 의례(儀禮) 가운데 현재 이익추구의 일면, 즉 재앙을 소멸하고 복(福)을 부르는 제재초복(除災招福)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전혀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성불이라는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

(成佛指向的)으로 모습을 바꿔가게 한다. 즉 세속적 이익을 바라며 행해지던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의례가 고도의 불교사상을 배경으로 점차 순화되면서, 성불 그 자체만을 목표로 하여 실천되는 수행법이 점차로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한 것들의 결실로 대 표되는 것이 『대일경』과 『금강경』의 중기 밀교경전이다.

밀교의식의 제재초복적인 성격과 성불지향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밀교의 의형적 모습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도 고대의 종교적 성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밀교의 의례와 의식의 근간은 바라문교의 제사의식에서 빌어온 것이 많다. 인간들의 기복적(祈禱的) 성향(性向)이 신(神)들에 대한 찬양과 제사의식을 낳았고, 그러한 것들이 4배대로 엮여져 전해진 것이 바라문교의 틀을 이루었다. 그

불교설화 <37>

두 그루의 은행나무

- 강학 전등사(傳燈寺)

『스님...』
『.....』
『스님...』
동승은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며 목정을 보였다. 노스님은 마치 천년 고목인 양 눈을 감은 채 말이 없었다.
하늘을 덮은 두 그루 은행나무가 서 있는 일주문 밖에 노스님은 아침부터 그렇게 앉아 있었다.
『노스님!』
사미선은 염주가 들린 노스님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

『스님, 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또 무슨 일로?』
『상감께 진상할 은행을 작년의 두 배인 20가마를 내라는 전갈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산까지 울음소리가 고요한 가을 산사의 적막을 깬다.
노스님은 육환장을 찼고 일어나 동승과 함께 일주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선재야, 너 벼슬아치 성화가 무서우나?』
『아뇨. 다만 해마다 은행은 10가마 정도 밖에 열리지 않는대...』
『그래도 바쳐야지.』
『소승은 벼슬아치들이 부처님 도량을 와서 행패를 부릴 때면 그들이 측은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들이 미워집니다. 스님, 어찌하면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선재야,』
『네, 스님.』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바라봤다. 노승과 동승은 마치 자신들의 전생과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아끼기 때문이니라. 자기를 아끼는 마음은 남을 미워하기도 사랑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인연때라 일어나는 일이니 나의 업으로 인해 남을 미워하는 곧 나를 미워함과 같느니라. 출가한 사문은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 오늘날 조정은 물론 사대부까지도 불법을 욕되게 하니 그렇다고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된다. 부처님 법은 결코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니 자비로써 대해야 하느니라.』

『선재야,』
『네, 스님.』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 바라봤다. 노승과 동승은 마치 자신들의 전생과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아끼기 때문이니라. 자기를 아끼는 마음은 남을 미워하기도 사랑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인연때라 일어나는 일이니 나의 업으로 인해 남을 미워하는 곧 나를 미워함과 같느니라. 출가한 사문은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 오늘날 조정은 물론 사대부까지도 불법을 욕되게 하니 그렇다고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된다. 부처님 법은 결코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니 자비로써 대해야 하느니라.』

동승은 노스님 앞에 머리 숙여 합장했다.
불교 탄압이 심했던 조선조 시절, 나라에 공물을 바치고 사역을 해야 했던 스님들은 깊은 산으로 들어가 은거했다. 따라서 많은 절이 폐사 또는 퇴락해 갔다. 이렇 조승 강학도 전등사에도 벼슬아치와 토호들의 토착질이 심했다. 젊은 스님들은 강학성을 쌓는 데 사역을 나갔고 나이든 스님들은 절에서 종이를 만들어 바쳐야 했다. 스님들은 이런 어려움을 수행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10가마 이상은 열리지 않는 은행을 20가마나 공물로 바치려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어여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여라. 불법의 길은 각자가 하는 일

종이를 만들던 한 스님이 동승과 함께 다가오는 노스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스무 가마의 은행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글쎄 어찌하면 좋을꼬?』

『상소? 소용없는 노릇이야.』

『그럼 탁발을 해서 바쳐야 할까요?』

『그것도 안될 일.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가 좋은 은행은 다 먹고 탁발한 은행을 진상했다고 트집잡을 것이다.』

노스님 주위로 갸우뚱대고 있는 대승들이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하나 둘 모여들었다.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수행의 길에서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자 인 행 부산 정각사

일선 사원에서 교화를 하고자 하면 운전은 필수라는 여러 선배 전수님들의 조언도 있었지만 내가 생각해 봐도 운전은 필히 해야 할 것 같아서 운전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면허는 이미 20여 년 전 치러서질에 따랐지만 소위 장문면허라 면허만 있을 뿐 운전에는 전혀 문외한이었다. 결혼 초에 몇 번 남편(지금 나와 살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도반?)에게 배우려고 몇 번 시도 했다가 자칫 잘못했다는 이혼할 것 같아서 그만둔 적이 있었다.

정각사에 근무하면서 운전을 다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같이 사는 도반에게 운전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몇 번을 나에게 되물어 보았다. 며칠 후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집 막내보다 더 나이가 많은 소형 승용차를 그가 어디선가에서 구해 가져왔다.

차량 외부 곳곳에 보이는 세일의 흔적과 상처들, 자동차에 반창고 같은 은색 테이프를 붙인 것은 생전 처음 봤다. 아무리 연습용이라고 하지만... 차가 굴러나 걸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 보았더니 도반은 어색한 웃음을 띠며 같은 이레도 20km 이상 된 차 치고는 엔진은 너무 좋다나 어쨌다나, 20km면 서울 부산을 왕복으로 250번은 해야 하는 거라인데 그러고도 차가 폐차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신기했다. 하여간 그 차를 가지고 시내도로 그리고 멀리 시의 고속도로까지도 나갔다. 물론 그때마다 부처님께 차량운행 원만 불공은 꼭하고... 몇 번을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겨 마침내 이제는 혼자서도 끝날 차를 몰고 나갔다.

얼마 전 운전석 문밖을 정각사 주차장 입구 벽에 아주 살짝, 정말 아주 살짝 부딪쳐 흡입이 조금 나고 도색이 아주 조금(?) 벗겨졌다. 그 후 오른쪽 앞문 쪽에서 뒷문 쪽 끝까지 아주 조금 도색이 벗겨지고 흡입을 대 여섯 줄로 꼭꼭 어 놓았다. 막내 아들이 좌우 조화가 썩 잘 어울린다며 나를 놀린다. 불효마침내!

며칠 전 오후 대형할인점에서 차를 주차하려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싸다고 하는 승용차가 딱히 내 앞을 막고 서는

것이였다. 나는 의아해 하며 비켜달라는 손짓을 했더니 그쪽에서 아주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알고 보니 내가 나오는 일방통행길로 들어간 것이였다. 비싼 차 뒤로 여러 대의 차가 줄을 서서 내가 비켜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였다.

나는 순간 창피스럽고 당황했다. 차 좌우로 길게 꼭 그어진 흡입부위에 덕지덕지 붙은 테이프에 폐차일보 직전의 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고, 순간 당황해서 후진도 못하고 절뚝할 때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어떻게 겨우겨우 후진을 해서 차를 한쪽으로 뺐는데 내 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차들의 운전자들 모두가 나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더욱 부끄러웠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주차장에 세워 놓고 현관문을 들어오자마자 차 키를 내팽개치듯 거실바닥에 던져버렸다. 다시는 운전하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운전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자비불공을 마치고 친구랑 통화하

면서 오늘 낮에 할인점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 하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 친구 께웃으며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면서 자기는 차를 폐차해야 할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도 지금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의 성사에는 항상 시련이 있다며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제법 철학적인 말과 자신이 좋아하는 경전의 한 구절이라며 들려주면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전화를 끊고 한참동안 친구의 말을 생각했다. 그렇구나!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려 했다고 생각하니 다시 부끄러웠다. 낮에 주차장에서보다 더 많이, 정말 많이 부끄러웠다.

「일을 도모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결성할 데 두게 되니,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많은 세월을 두고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가 일러준 그 구절을 나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보양삼매경」의 한 구절이다.

우리의 이야기

마음의 전화 한통 기다려주세요

살다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정신은 먹었나는 전화 한 통에 마음이 위로가 되는 그런 소박한 날이 있습니다.

전화해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 따스함을 잊지 않으려고 달린 마음 잠시 열어서 그에게 그려봅니다.

일에 치여 아침부터 머리가 복잡해져 있을 때 뜬금없는 전화 한 통이 뽕뽕질하는 심장을 잠시 쉬어가게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 살다보면 그렇게 전화 한 통 받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요즘 세상이라 이런 날은 백백하게 살든 나를 한 번쯤 쉬어가게 합니다.

“차 한 잔 하시겠어요?” 살다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차 한 잔 먼저 하자는 그런 벨스런 날도 있습니다.

따스한 마음마저 거부할 이유가 없기에 아낌없이 그 마음 받아들여 차 한 잔의 한가로움에 취하는 살다보면 그런 날도 있습니다.

-임솔재(전인행자 카페 cafe.daum.net/chongjisa)

생활상식

◀ 두부 팩 화분으로 베란다에 미니 텃밭 만들기
숙이 깊은 두부 팩 바닥에 구멍을 몇 군데 뚫고 배양토를 넣는다. 화분 받침으로는 재활용 스티로폼 판재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베란다에서도 파, 담근, 숙, 방울 토마토 등을 재배할 수 있다.

손잡이가 달린 대용량 페트병(기름 병, 소주병 등)으로 모종상을 만들 수 있다. 손잡이가 달려 있는 쪽이 위로 오도록 하고 페트병의 아래 부분을 칼로 비스듬히 자르면 된다. 까칠까칠한 단면은 라이터 등의 열로 지져서 날카로운 곳을 처리한다.

◀ 꽃병에 꽃을 꽂을 때 표백제를 사용
꽃병의 물에 표백제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잘라 낸 꽃 가지가 썩소보다 오래 간다. 반 컵 분량의 물에 표백제 몇 방울이든 충분하다. 표백제의 살균 작용으로 꽃 가지가 쉽게 썩지 않는다. 물을 자주 갈아 주는 것이 좋다.

◀ 식초 물로 식물의 해충과 질병을 예방
물 500 ml에 식초 50 ml를 첨가한 식초 물로 채소와 허브 등의 병충해를 예방한다. 분무기를 이용하여 잎과 꽃 뒷면까지 골고루 뿌려 주면 진딧물과 백분병 등을 처치하는 효과가 있으며, 성장도 활발해진다.

부처님이란

부처님이란 인도의 옛 말 ‘붓다’에서 온 우리 말로, 본래는 ‘깨달은 이’, ‘진리에 눈뜬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이것을 한자로 번역할 때 소리는 대로 ‘불(佛)’ 또는 ‘불타(佛陀)’라 하기도 했고, 뜻으로 옮겨 ‘각자(覺者)’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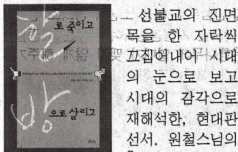
는 영원하고도 보편타당한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이가 부처님이고, 그로 인해 완성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가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상 실재하는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시게 된 것입니다.

-윤우재 기자

이달의 추천도서

향토 죽이고 방으로 죽이고

원철지음/호미



선불교의 진면목을 한 자락씩 끄집어내어 '시대'의 눈으로 보고 '시대'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현대판 선서. 원철스님의 「향토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는 명상과 권위로 신화가 되어버린 화두를 오늘의 시대정신과 현대적 감각으로 부수고 깨뜨려 재해석함으로써, 그것이 본디 지녔던 이상의 생명력을 되살려낸다.

행복을 좋아하지마라

김삼백지음/윤주사



자. 김삼백은 대학 1학년 때 성종출사에서 「불행스님」을 처음 읽고 불명을 받고 인연을 맺은 후, 기나긴 사회생활의 길을 돌아 20년만에 다시 스님을 받고 불법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였다(2004년). 이 책은 그가 스님의 일부를 엮은 것으로, 여기에 자신의 단상을 함께 써넣었다.

능엄신주 변론

선화상인지음/불광출판사



능엄신주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능엄삼매경을 이루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법과 온갖 마(魔)를 조복하는 두 가지 면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말하면서 능엄신주의 여섯 가지 주요 작용으로 성취법(成就法), 증익법(增益法), 식재법(息災法), 구소법(勾召法), 함복법(降伏法), 길상법(吉祥法)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수행자는 형소부입니다.

정호지음/불광출판사



유민 대각사 주석, 정호 스님의 불교 에세이. 이 책은 수행자인 저자가 그동안 술하게 만났던 사람들이 털어놓은 문제 괴로움을 들으면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모색한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책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저자는 수행자가 청소부를 자임한다. 절은 마음의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가는 쓰레기장이니 분노, 탐욕, 어리석음, 고풍 번뇌의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라는 것이다.

경주시 전통시장
Gyeongju Traditional Market

금삼인삼

동원시장점 가-42호 02. 499-9006

인삼의 고장 금삼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사장 김경임 (복음사교도)
010-9960-8778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혈,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크)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노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불교환경연대 “향후 10년” 발표예정 NGO 센터 건립, 연구소 설립, 인재불사등



▲불교환경연대가 불교환경 운동의 도약을 위한 '3대 불사'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 스님)는 지난 8월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14일에 2009년 불교환경연대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불교환경운동의 지

난 10년을 뒤돌아보고 향후 10년의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10년 동안 지리산 살리기, 북한산 관동

도로저지, 운하백지화 도보순례, 오제부지 순례 등 환경운동에 앞장서 왔다.

발표될 불교환경연대의 청사진은 △불교NGO센터 건립불사 △불교환경연구소 설립불사 △불교환경 인재불사 등 3대 불사이다.

이 불사를 통해 화엄세상을 향한 불교환경의 기반을 구축하고 불교환경운동의 재도약을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13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할 불교NGO센터 건립불사는 불교환경연대의 안정적인 사무공간 마련과 불교계 사회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연대와 교류를 위

해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생명나눔실천본부,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불교환경연구소 설립불사는 불교환경 운동을 불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연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말까지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리고 2010년 연구소 설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 2010년 하반기 불교환경연구소 ‘지수화중’ (가칭)의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교환경운동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불사도 추진한다. 2012년까지 인재불사를 위한 자금 조성에 주력하고 불교환경 장학재단을 설립해 매년 50명에

게 1억여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수경 스님은 “인적자원 및 재정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3대 불사라는 비전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환경운동을 넘어 불교가 가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불교계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후원의 밤은 오는 10월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열린다.

웨딩업체 ‘황당한 광고’ 물의 불교계 “성직자 모욕…해당업체 사과” 촉구

▲독신 수행자인 스님과 수녀의 손잡은 모습을 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 웨딩업체가 한 타블로이드 신문에 불교와 가톨릭 독신 수행자인 스님과 수녀를 등장시켜 결혼을 암시하는 내용 담은 광고를 게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웨딩업체는 8월21일자 메트로(METRO) 신문에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웨딩페스티벌’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문제는 광고 내용에 종교 성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광고는 스님과 수녀가 손을 잡은 뒷모습 사진과 함께 우측 상단에 ‘웨딩페스티벌’ 문구를 실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두 성직자들이 결혼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재경스님은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종교 성직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범불교대책위원회도 이번 광고가 성직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판단,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향후 논의를 거쳐 해당업체에 사과광고 게재, 책임자 중단 사과 방문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웨딩업체는 “광고 게재와 관련 심의나 절차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지금의 ‘천수경’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성운 선리연구원 월례발표회서 발표

현행 <천수경>은 어떻게 성립했는가?

<천수경>은 전국 사찰에서 <금강경> <지장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과 함께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 중 하나다.

동국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성운 선리연구원은 한국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이 8월 31일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천수경>의 구조와 의의 등을 밝혔다.

이 연구원은 주제발표 <현행 <천수경>의 재검토>에서 △<천수주>를 활용하는 발원의 계가 원의 계로 확립했다는 점 △<천수주>를 중심으로 몇몇 의계가 결합해 저녁송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 △저녁 송주 소예함이후 도입되면서 준제행법과 함께 현행 <천수경>의 기본 골격을 갖췄다는 점 △참회회계·진언에 삭제와 추가를 반복하며 현재의

모습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천수경>에는 발원성취·엄정도량·참회성취·준제행법·멸악취의 계들이 모여 삼매수행과 열불삼매 등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정각스님이 논평을 하였고, 박경준 교수가 사회자로 참석했다.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 천일기도 회향

“신도들의 관심과 성원에 회향”

2009년8월30일 오전10시 가람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사부대중 2000여명이 봉은사 대웅전 마당에서 “천일의 악수, 또 다른 시작”이라는 주제로 래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의 1000일 기도 회향이 있었다. 스님은 지난 2008년 12월5일 1000일 기도에 들어갔다.

지난 5월29일 서울 경복궁에서 거행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석할 것을 제외하고는 1000일 동안 한 번도 산문을 나가지 않았던 스님은 그 동안 하루 1000배씩 절을 하며 봉은사를 수행도량으로 바꾸는 일에 매진했다.

명진스님은 1000일 기도 회향을 5일 앞둔 지난 25일 봉은사 대웅전에서 간담회를 열고 “1000일 기도는 봉은사 신도는 물론 대한민국 불자들이와 약속으로 생각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늦게 잡자리에 올 때는 알람시계를 두 개씩 맞춰놓고 자는 등 하루도 마음을 놓는 날이 없었다”면서 “주위의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지만, 신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명진스님의 1000일 기도를 계기로 대표적인 도심사찰인 봉은사도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007년 불전합을 포함한 모든 사중 재정을 공개했고, 매주 종무회의에 신도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파격적인 종무행정으로 신도수와 수입증가로 이어졌다. 신도는 2006년보다 5만 명 이상 늘어난 25만 명에 이른다. 또 취임 첫째 88억 원이던 예산은 매년 20%씩 늘어 지난해 122억 원으로 증가했다. 스님은 “천일기도를 하는 동안 사찰재정을 투명하게 하여 신도들의 신뢰가 90%이상 높아졌다”며 “일요법회 참석인원도 5배로 늘고, 신도도 30%늘었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그 동안 촛불시위, 용산참사 등을 접하며 현장으로 달려가고 싶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봉은사 신도였던 관공숙 여사와의 인연도 있었지만, 여사의 호출에 동참해 불교적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는 필요성을 느껴 산문을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경내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용산 참사현장을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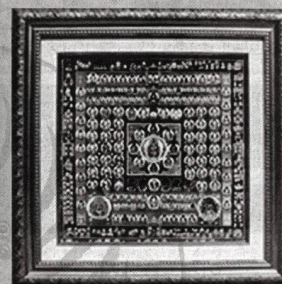
회향날 봉은사 경내에 선 명진스님.

진리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태장계 만다라 *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가대비야인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 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생장시켜 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만다라는 중앙의 종대팔엽연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신등 모두 414인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 금강계 만다라 *

금강계 만다라는 ‘금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금강의 부처의 경계,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에게 생명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만다라는 중앙의 생신의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제천, 연경신불등 모두 1,461인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 구성표

◆ 사이즈 및 가격 (태장계, 금강계 만다라가격동일)

- ▶ 1000 x 1000 1개 650,000원 (액자포함)
- ▶ 750 x 750 1개 500,000원 (액자포함)
- ▶ 500 x 500 1개 300,000원 (액자포함)
- ▶ 250 x 250 1개 200,000원 (액자포함)

* 문의 : 불리원 T. 02-552-1080~3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80-047811 예)불교총지중

● 불교총지중



'8.27' 1년...종교편향 변화된 것 없어 사회적 역할 먼저실행, 종교평화활동으로 전환해야



◇8.27 범불교대회 1주년 세미나 모습

8.27범불교대회를 주도했던 '헌법과 종교편향 종식 범불교 대책위원회(위원장 승인 스님)'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희망찾기'를 주제로 1주년세미나를 열었다.

"한국불교가 잠에서 깨어나 세상에 함께 외친, 세계사에 유례없는 행보를 했던 날이며, 세계 최초 최대의 불교대회는 공존과 상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였다. 불교내부 문제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슬람 정권 이후 발생한 주요 종교편향사례 36건을 제시하며 종교차별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사화운동본부와 비롯한 홀리클럽은 지금도 국가복음화를 위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대법원의 종교관련에서 비롯된 기독교인들의 정부 주요요직 임명 등의 인사철학 또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수의 공직자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현재의 상황이 크게 변화될 리 만무하다"고 개탄했다.

진화 스님은 종교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응법의 전면적 전환을 주문했다. 종교편향 사건에 일회일비할 것이 아니라 종교평화 정착활동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관용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갈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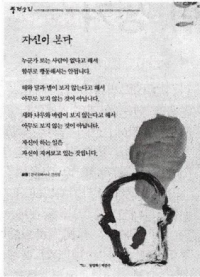
논평자 현자 스님(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은 종교편향 대응 활동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교편향을 바라보는 불교계의 시각이 긍정하고 엄정해야 또다른 사회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교계 내부에 대한 냉정한 성찰 또한 중요한 문제로 꼽은 현자 스님은 "안과 밖이 일치하지 못할때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화 운동 방식과 승단의 청렴성, 도덕성, 종단의 선거제도, 사회 복지의 열세 등을 언급했다.

서화동 기자(한국경제신문)는 종교편향 사건이 성사화운동, 국가복음화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불교계의 주장에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종교적 관용의 자세를 불교계가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른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타인과 타종교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것을 선교성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운 기독교의 배타성과 공격성이 중단되지 않는 한 종교 권력화와 종교인권 문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지하철포교 10년 청사진 제시예정 풍경소리, 지하철포교 앞장서



◇지하철역에 전시된 풍경소리 화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 풍경소리(화상 섣목스님)는 오는 10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공간, 매체, 콘텐츠'를 통한 포교의 지평 확대-풍경소리 10년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풍경소리'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와 박수호 중앙승가대 강사가 공동으로 제1주제인 '포교공간으로서의 지하철 역사와 새로운 포교 패러다임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고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주경스님이 토론을 한다. 이어 제2주제인 '풍경소리의 내용과 형식에 나타난 사상성 탐구 및 발전적 모색'에 대해 박경준 등교대 교수가 발표를, 수필가 맹난자 씨가 토론을 갖는다.

제3주제인 '풍경소리 활동을 통해 본 불교문화운동의 지평 확대'는 박형진 고려대 교수가 발표를, 최원 불교사회연구소장이 토론을 펼치며, 제4주제인 '불교 콘텐츠(게시물)의 대중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활용 방안'은 이재수 전자불전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한 뒤 김기주 한국리서치 부장이 토론을 하게 된다. 한편 지난 1999년 9월28일 창립한 풍경소리는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 소속 115개 역 460개 게시판으로 시작해 현재 전국 각 지하철과 철도 역사 800여 곳을 비

롯해 학교, 교도소, 군부대 등지에 2300여 개의 게시판을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다. 풍경소리의 게시판은 동국대 전 교수인원스님과 공주 화림원 주지 정현스님, 배관성(케레스타 대표) 풍경소리 후원회장, 김원각 시인, 순기원 지혜경영연구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236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풍경소리 창립 10주년과 불교신문 창간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3월 공동 실시한 '지하철 이용시민 종교의식 조사'에서 풍경소리의 게시판 이용자의 48.3%가 1주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게시물을 읽고 있으며 이용자의 66.2%는 풍경소리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풍경소리의 포교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총지종의 총지사와 실시하는 각각 역삼역과 미아역 역사에 풍경소리를 전시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지하철포교를 하고 있다.

청소년 교리경시대회 연다 교리실력으로 인재양성 불사



제1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 출제 범위와 심사 개요 등이 확정됐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주최하고 불교닷컴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법인 스님과 동국대 박경준 교수가 공동출제위원장을 맡았다.

초중등학교 모두 50문항을 출제하고, 객관식(5지선다형) 40문항, 단답형 주관식 9문항, 서술형 1문항 등으로 구성했다.

객관식 문제는 난이도에 따라 0.8점에서 2점 등 모두 60점, 단답형 9문항이 20점, 서술형 1문

제가 20점 등 총 100점을 만점으로 우열을 가린다.

서술형의 경우 '중도, 연기에 대해 논하시오'와 같이 교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묻는게 아니라 '절에 다니면서 어떻게 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가'처럼 불교에 대한 건강한 관심을 바탕으로 신명 생활을 한 청소년이든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

출제 범위는 조계종출판사에서 펴낸 <청소년불교입문>에서 80%, 초중등학교의 국어 도덕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 부분 가운데 20%로 정했다. 난이도는 20%(상):30%(중):50%(하)로 구성할 방침이다.

출제위원장 법인 스님은 "교사 위기인 청소년 포교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문제는 지식, 이해, 적용의 틀에서 출제할 것을 출제위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박경준 교수는 "불교를 친숙하게 하는 기록제가 될 것"이라며

"시험문제의 공정성 등을 기하는 과정에서 불교학자들이 보다 정치하고 체계적인 불학연구의 계기로 작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출제위원과 인쇄소 등은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응시자는 9월 5일까지 (사)과라미타청소년연합회 홈페이지(<http://gyori.paramita.or.kr>)를 통해 접수한 뒤 수험표를 인쇄해 시험당일 수험장으로 들고 오면 된다.

총 응시생은 2641명으로 마중도 있었으며, 고등학교 1381명, 중학생 1003명, 초등학교 257명이 접수되었다.

이번 경시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여까지 2011학년도 동국대입시 사정에서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어서 전국 청소년 불자들 사이에서 조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평택 남양주 등 전국 8개의 고사장에서 9월 12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결과발표는 9월 22일 (불교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문의 02-723-6165(과라미타청소년연합회)

서울보증보험
LIG 손해보험

청담대리점 대표 이원숙
서울 보증보험 강남지점(강남역2번출구) 02) 3420-2020 fax 3420-2021
010-7470-1992 cda0809@hanmail.net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이만구
010 - 9921 - 9990
02) 739-2900
tot20009@hanmail.net
www.metlife.co.kr

MAGIC 지점 FSR / MDRT / AFPK
서울대은퇴설계전문과과정수로
우수인증설계사 / 부동산학석사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

기독교계, 학교서 성경교육 시키게 해 달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폐기 요구... 황당한 제안

최근 기독교계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이젠 대놓고 학교에서 성경공부를 시키게 해 달라"는 요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기독교계의 요구에 대해 "기독교 사학에서 성경을 못가르치게 한다는 불만소리"라고 비판하고, "종교사학은 종교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며, 종교교육을 받는 것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학생의 인권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교육을 들으려는 학생에게 가르치고, 듣지 않으려는 학생에게는 다른 과목을 가르치면 된다"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왜 어려운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

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개정법률안 폐지를 주장한 기독교 단체

에 "무엇이 진정한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하심단회한 대화를 바란다"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불교방송사장, 진흥원에서 1달 안에 추천해야 이사, 대의원, 예정정사 등 4명 새로 선출

재단법인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스님)은 9월 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 69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안건은 사장 선출의견, 이사선임의견, 대구지사 사육부지 매입 승인의견과 기타사항이 있었다. 신임이사로는 대원스님(중앙승가대 총장), 예정 정사(전각종 통리위원장), 김규철 이사(전종업원 이사), 영상호(불교재단 이사장)등 4명이 선임되었다. 이사회의는 사장 선출의견에 대하여 사무국은 "한

달 내에 진흥원에서 추천을 하면 이사회를 소집하여 10월 16일 이전에 사장을 선출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교방송의 사장은 1년 동안 공석에 있었다. 또한 경영 컨설팅에 대한 운영 방침은 신임 사장 선출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는 영담스님을 비롯하여, 총지종원승 통리위원장, 보선,정무,종하,전각종 무의장, 진흥원 민병천 이사장등 13명의 이사 와 2명의 강사가 참석했다.

경로법외 참가기

‘행복한 하루’ 맘껏 누리세요~

사원, 도반들 간 결속력 생겨

입주가 지난 하늘은 하얀 구름이 조각처럼 떠있고 날씨만큼이나 1박 2일로 떠나는 경로법외는 설레고 기대되었다.

그래서인지 총지사에 모인 보살님들 얼굴은 밝게 들떠 있었다. 다섯시간 가까이 소요된다는 경북 울진의 백암은원은 생각보다 더 멀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먼 거리일지라도 소풍처럼 나온 이 시간들을 조용히 침묵하며 보낼 수는 없지 않았는가. 밖의 풍광을 눈으로 즐기며 총무님의 재치있는 말씀으로 유익한 법륜 요청이 이루어졌다.

“오늘 사는 삶은 다음 생의 성적표입니다. 이 나이에 이르고 보니 더욱 더 두려움으로 다가서

는 게 인과법인 것 같아요”

법정화 스승님의 팔리는 음성 이 내마음에도 살포시 떨림을 안긴다. 또 우리 종단의 수행법을 최상의 진언임을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늘 자강심을 심어주시는 총지와 스승님의 막힘없는 법문에도 진한 감동이 물려온다. 차창밖으로는 산과 산이 이어지다가 이윽고 눈앞에 거대한 바다가 펼쳐졌다. 청색물감을 풀어 놓은 듯 선명한 에메랄드 빛 바다 저 멀리 지평선이 아득하게 눈에 들어온다.

6시간 남짓 소요한 끝에 드디어 경로법외 장소인 백암은원에 도착했다.

자랑봉사, 그리고 기쁨조는 막

판 더위와 씨름을 하며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과연 반응이 어떨지 현수막에 쓰인 슬로건처럼, ‘부처님세상, 행복한 하루’로 맘껏 느껴 드리게 할 수 있을까?

많은 팀들이 장기자랑에서 기량을 뽐내고 큰 박수를 받았다. 드디어 우리의 차례, 과격적인 아웃림에 아프리카인처럼 행세하며 춤으로 선보인 율동, 경로 연세임에도 기꺼이 대열에 참가하신 분이 절반이었다. 그렇게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팀을 만들었고 마음이 똬똘했다. 긴장이 되었던 연습장 만큼 기량을 뽐내지 못했다.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고 자평해본다.

늘 그렇듯 이런 행사를 앞두고



▲경로법외 장기자랑 중 총지사 분장 공연.

여러가지 소품, 의상을 준비하고 열정을 갖고 앞에서 이끄시는 회장님 모습은, 다른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는 나의 생각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불편한 몸으로 우리에게 열심히 율동을 가르쳐 주신 손경목보살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모든 팀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이런 행사로 인해 더욱 더 도반들간에 결속력이 생기고 법외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알게 되었지만 우리 종단은 참종 당시 얼마되지 않아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계신 노보살님들께 나중에 머물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하루속히 현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 간절히 합장을 드려봅니다.

- 실밀화

신행체험



이금복 보살
(총지사)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넓은 마음으로 항상 밝은 얼굴을 하고 계시는 이금복 보살님에게 신행체험을 들었습니다.

◆보살님 안녕하세요. 총지종과 인연 맺은 계기=친정어머님께서 현교에 다니시 불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총지종은 4년 되었습니

다.
동네에 있는 수영장을 다닐 때 회원 중에 한분이 초파일에 사용할 연등을 만들기 위해 절에 간다고 하길래 같이 간것이 총지사였어요.

◆어느 분의 제도, 총지사의 첫 느낌=박정희 보살님이었지요. 지

금도 한동네에 살아 함께 절에 오고가곤 합니다. 좋은 보살입니다. 역삼동은 젊었을 때 생활 한 적이 있어 지리도 알지요. 첫 느낌은 현교 절을 알고 있어 평소 하지 않았고 들어설 때 그냥 편안 했어요. 박정희 보살이 많이 도와 주었지요.(추후 수영회원 3명이 총지사에 들어 왔다고 했다).

◆개인수행은 어떻게. 기도 내용, 법명=새벽 5시부터 1시간이 상 정송합니다. 처음에는 새벽, 오전, 밤, 나누어서 했지만, 노즈음은 손녀딸을 돌보아야 하므로 밤에는 못 합니다. 아이가 학교 오는 시간부터 부모들이 오는 시간까지는 같이 있어요. 불교방송은 꾸준히 들어요. 스님의 열불소리도 좋고, 좋은 말씀도 듣고요. 기도하는 그날도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저의 만족입니다.

법명은 항상 정진하라는 뜻에서 상징진(常精進)입니다.

◆손녀(초등 2학년)가 어린이 수련법외에 참석 시 보살님도 참석에 맞았어요. 우리 절 보살 중에서 유일하게 손녀와 같이 있었어요. 애가 작년에 남해에 갔을

때 너무 좋았다고 말 하더군요. 올해도 참석하고 싶으면서 할머니와 같이 가야 된다고 하길래 같이 보령에 갔다 왔어요. 애가 좋아하는 걸 보면 나도 즐겁습니다.

◆그동안 수행의 공덕이나 영험=수행의 결과로 그렇게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가족(솔하에 2남을 두었다)이 무탈하게 잘 있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형제간에 우애 있고 손녀 잘 자라고,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이 잘 있는 것 하죠. “절안야 편안하네 행복을 느낀다. 모두 잘 있으니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여깁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불교경전 중 좋아하는 글이나 좌우명=내 어렸을 때 친정어머니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내가 믿고 살아가라” 말씀을 해주어 조금 손해나더라도 참으라는 뜻으로 좌우명을 삼고 있어요. 욕심을 내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왔어요. 애들한테도 고3때 공부하라는 말도 잘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난 아들과 며느리들을 믿고 있으니가 그런 겁니다. 우리 큰 며느리는 절 행

사 때 예쁜 꼭 읊니다.

그리고 시댁이나 친정에도 형제간에 욕심을 내지 않으므로 다툼이 없어요.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여깁니다.

◆경로법외 참가 느낀 점=경로법외에 처음 참가 했어요. 전국 각지의 보살님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규모에 놀랐지요. 저보다 한참 많으신 노보살님을 비롯하여 기도할 때는 열성했었어요. 앞으로 발전하는 종단이 되겠다 생각도 했지요. 그리고 장기자랑을 한다고 일주일 전부터 잘 하지도 못하는 노래와 춤을 배울 때 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무대에 올라갈 때는 흥이 나고 신이 났습니

다.
◆절과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교도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불공하는 분위기에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 해 교도님께 고맙습니다. 우리 절은 모두 화목하게 잘 지내어 좋아요. 전수님과 교도님께 감사합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은 천도 불공 때 서원을 많이 적어 내지 않

으로 길어집니다. 서원을 많이 적어 내는 것은 당연하나 기다리는 다른 교도를 위해 한사람의 서원을 한가지 만 적어내면 어떻

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 계획=어느 때처럼 새벽 불공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월초불공은 빠지지 않고 했어요. 앞으로라도 계속 할 것이에요. 49일 불공은 손녀 돌보는 것으로 어렵습니다. 합창단에서 같이 합창도 하고 율동하자는 제의가 있었는데, 노래 못한다고 했더니, 같이 어울리면서 음성공양으로 다른 사람들 즐겁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해서 생각 중에 있어요.

보살님은 손녀가 올 때가 되었다고 환급이 일어나셨다. 같이 계셨던 박정희 보살님은 이 보살님이 총지사에 다닌 후로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다.

“변화된 모습은 보살님에게 향기가 난다”고 했다. 그 향기는 무엇일까요.

- 박종현 기자

사찰음식

스님들이 살면서 웃어요~[僧笑]

들깨 칼국수

우리나라에서 밀은 삼국시대부터 재배되었다고 하는 하지만, 생산량은 그다지 신통치 않은 것 같다. 송나라 사신 서경이 쓴 『고려도경』에 보면 주로 화북지방에서 수입하여 사용한다 하였다. 그래서 예전에는 귀한 곡물로 여겨 제례상에서나 맛볼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다.

한편, 사찰에서는 면을 직접 만들어 팔기도 하고 여러 음식 중에서 국수 맛이 으뜸(食味十餘品而麵食爲先)이라고 『고려도경』에서 전하고 있으며, 이미 조선시대 이전에 국수재료 및 국수를 종류가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스님들이 드시는 국수를 왜 ‘승소(僧笑)’라는 별칭으로 불렀을까이다.

육면에서 ‘소(笑)’를 찾아보니 종류가 많기도 많다. 그 중에 전전난난한 갓난아기의 미소와 반가시유상 및 서산 마애부처님의 미소와 견줄 수 있는 미소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미소는 어떻게? 큰방 좌복에 무심히 앉아 공양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슬며시 풍겨오는 향긋한 들기름과 면 특유의 향기에 잔잔히 웃음 짓는 스님들의 미소, 이제는 온갖 반보 망상과 오욕에서 벗어난 노스님의 미소!

노스님들께서 만면에 자재로운 미소를 띠시며 ‘승소’ 드시는 모습이 불현듯 보고 싶다.

들깨가 불교장수의 식품으로 알려진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필수지방산인 리놀산과 수종의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리나놀 등 항산화 방향(芳香)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식욕을 돋우며, 소염·소담 작용이 있고 변비에도 좋은 식품이다.

노스님들께서 식전에 들기름을 한 수저 드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피부탄력과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다.

■재료

밀가루 3컵, 표고다시물 4컵, 들깨 1컵, 애호박 반 개, 우유 3알, 표고버섯 4개, 소금, 깨소금, 식용식기름

■조리법

1. 밀가루를 뜨거운 물에 반죽하여 밀대로 알맞게 밀어 5cm 폭으로 만든 다음, 골게 채치듯이 썰다.
2. 들깨는 잡티를 골라내고 물에 푹 삶았다가 물을 부어 가며 맷돌이나 믹서에 간다.
3. 애호박과 표고는 각각 골게 채를 썰어 기름을 두른 후라이팬에 볶다가 간장과 깨소금으로 간을 맞춰 따로 담아 둔다.
4. 삶은 표고다시물에 칼국수를 넣고 애벌 삶아서 건져 낸다.
5. 4에 들깨죽(또는 들깨가루)을 넣고 골바라 끓인 후에 애벌 삶은 면을 다시 넣는다. 들깨국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맛이 난다.
6. 상에 낼 때는 볶은 애호박과 표고, 은행을 얹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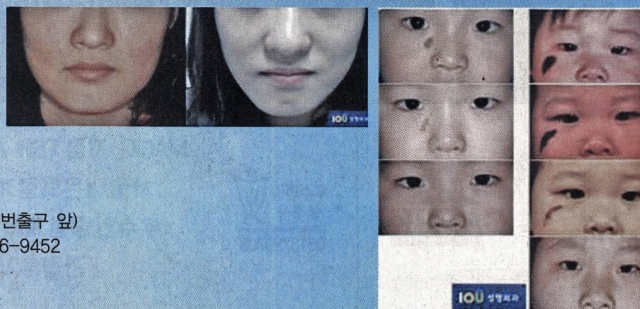
36.5℃의 따뜻한 감성으로 다가가는 IOU 성형외과입니다.

| LOVE YOU 성형외과 | LOVE YOU 성형외과 | LOVE YOU 성형외과 | LOVE YOU 성형외과 | LOVE YOU 성형외과 | LOVE YOU 성형외과 | LOVE YOU 성형외과



강 철 옥
원장/성형외과 전문의

135-887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3-4 만년빌딩 2층(신사역 8번출구 앞)
Tel 02.549-0365 Fax 02.549-0364 Mobile 010-4046-9452
www.iou4u.com E-mail, kcu36.5@daum.net





영화에서 불고보기 ⑥ / 키크를 들다

우리 곁에 오신 관세음보살



아마도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불보살님은 관세음보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님은 불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보살이지요. 어려움에 처한 중생이 일삼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그 소리를 듣고 보살님은 자비심을 일깨워 중생을 구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할까요? 절에 걸린 탱화, 아니면 불상에서 보이는 그 원만한 상으로 중생 곁에 나타날까요? 누구라도 보살임을 알게끔 발품을 보이며서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모습으로 중생 곁에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바라문으로 설법할 중생에게는 바라문으로, 비구가 되어 설법할 중생에게는 비구가 되어, 소년·소녀가 되어 설법할 중생에게는 소년·소녀가 되어 설법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관세음보살이 온갖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보고인 〈삼국유사〉에서도 관세음보살님의 다양한 변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은 주로 수행자에게 그 모습을 보인다고, 〈삼국유사〉의 관세음보살은 여러 모습을 나누어 수행자의 수행 정도를 가능케 하는, 때로는 파랑새의 모습으로, 때로는 뱀에서 더러운 옷을 빨래하는 아낙으로, 때로는 만삭의 몸을 한 여인으로, 또 때로는 수행에 방해가 되는 파파리(파리의) 이미지로 등장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이론과 〈삼국유사〉의 실재를 종합해서 정리하면 관세음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이웃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나를 가장 괴롭히는 직장 동료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자식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들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관세음보살을 거룩한 모습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관세음보살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요, 내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이가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고, 가장 큰 행복을 안겨주는 이가 관세음보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난 이 영화 〈키크를 들다〉에 나오는 주인공에게서 관세음보살을 발견했습니다.

〈키크를 들다〉는 올 여름에 나온 한국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관세음보살 열행담의 기본 골격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어려움에 처한 중생 앞에 나타나 그에게 도움을 줄 때 클라이막스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열행담의 기본 모티브를 이 영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는 전반

야만큼 절박했다면, 주인공 영지는 피한 방을 섞이지 않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의탁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동등하다는 이유로 동년배는 별명으로 불리던 현정은 짝사랑하는 남자 친구에게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었고, 소녀 영주는 아픈 엄마를 위해서 역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역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실패한 역사인 이자복 코치가 다가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나면 88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팔을 다치고 심장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역기를 들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한미더로 실패한 역사입니다. 물론 그의 마음도 이상처럼 많이 꼬여있었습니다.

사실 역도 코치 개인의 모습으로 보면 역도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한 그에게서 전혀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한 몸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 누르는 모습이기도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서 벗어날 길을 발견합니다. 연민이지요.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자비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다른 특징이 자비라고 봤을 때

에게 역도가 유일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출구라는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쌍한 영자, 동기 프로텍트의 일환으로 역도부에 음식을 만들어 먹일 수 있는 주방을 만들고 또 합숙훈련소도 만듭니다. 마침내 그에게는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소녀들을 역도선수로 성공시키는 데 온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녀들을 위해서 장을 봐와 영양가 좋은 음식을 해먹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시키고, 또 '운전선수'는 무시한다'는 소리를 듣게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도 시킵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이들에게서 매우 헌신적입니다.

그는 분명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헌신적인 보살림과 애정 덕분에 영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중년에서 동년배는 좀 젊어진 느낌까지 얻으면서 학교 공직적인 완화된 현정은는 학교 캠퍼스를 사귀게 됩니다. 이런 게 모두 이자복 코치의 헌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특징이 자비심과 중생 구원이라고 봤을 때 그를 관세음보살이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 곁에 온 관세음보살이라고 제목을 갖다 붙여도 될 만큼 구원의 공식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1988년 제 81회 전국체전에서 15개의 금메달 중 14개의 금메달과 한 개의 은메달을 따면서 파란을 일으켰던 손창영과 또 손창영과 코치였던 정인영 코치를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진정성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는 늘 관세음보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에서 수행자에게 수행의 정도를 가능케 하는 부처님도 계시고 〈키크를 들다〉에서 나오는 이자복 코치처럼 자신을 헌신해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부처님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진심으로 소통하고 그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누구나 관세음보살이라고 관세음보살을 인간과 구별해서 먼 데서 찾지 말고 바로 내 옆에서 중생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중생이라는 진리 속에서 찾게 된 영화였습니다.

- 김은주(자유기고가)



보성의 시골

중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시골 중학교 역도부 소속의 6명의 소녀들과 코치입니다. 여기서 소녀들은 고통에 빠진 중생들이고 코치에게서는 소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관세음보살의 이미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소녀들에게서 역도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지푸라기이기도 했지요. 역기를 놓는다면 그녀들에게는 아무 것도 남지 않을 만큼 마지막 남은 보루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자비관

세움을 바탕으로

다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다른 애들이 모두 점심시간에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즐겁게 떠돌고 있을 때 주린 배를 움켜잡고 애들이 버린 우유를 쓰레기장에서 찾아내 마시는 영자를 보면서 코치는 연민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서 자신의 상처로 갇혀있던 의식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도시락을 영자와 나눠 먹고, 또 갈 곳 없는 영자의 처지를 알게 되고는 역도부 창설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던 태도를 바꿨다. 영자

세상은 이야기

이사를 하면서

올해는 사상 초유의 전세 대란이라고 한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파트도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두 집 이사 하기 시작하니 어느새 많은 집들이 이사를 갔다. 아파트 우리 층에는 두 집만 남고 다 떠나가 버렸다. 그들은 참 부지런하게도 낡은 아파트를 버리고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일찍 떠나가 버렸다. 여러 해 뿌리 내리고 살던 곳을 아무 미련 없이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 아마 여러 해 동안 기다려온 지진 탓이었으리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하나 둘씩 보낸 나는 마음 한쪽이 점점 비어가고 있다. 드는 자리는 표가 나지 않지만 나는 자리는 크게 표가 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마음만 비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전체가 점점 황폐해지고 있다.

어제부터 갑자기 우리 동네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 기술자와 관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밤을 불별 돌리며 고치지만 물은 오늘 이 시간까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저런 일로남아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더운 여름을 피해서 선선한 가을에 이사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우리 문제가 더 커졌다. 딸들은 직장 따라 이 곳 서울에 그냥 있고 나는 남편 회사 근처인 안산 방향으로 옮기기로 했다. 먼지 딸들의 집을 구하기 위해 많은 곳을 해봤다. 딸들만 들른 전세대란이 살만 없다. 집을 구할 수 없고 어쩌다 나온 집은 부동산에 나오자마자 계약이 되어 버린다. 여러 날을 헤맨 후 적당한 집이 있었다.

그날은 밤이 늦어 다음날 와서 계약하기로 약속하고 집을 구했다는 안도감에 편한 마음으로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찍 부동산에 찾아갔다. 벌써 전셋집은 남의 손에 넘어간 후였다. 다른 부

새로운 곳에 뿌리 내려 큰 나무 되길

동산에서 계약을 했다. 딸과 난 한꺼번에 기운이 쏙 빠져버린다. 며칠 후 우리는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하실이 가까운 빌라를 계약했다. 집을 구하려 다니다 지쳐버려 그냥 계약해버렸다. 들어오는 길 출가분하면서 마음 편치 않다. 좀 더 좋은 집이 없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다 큰 자식들이지만 집을 구하고 나니 공연히 마음이 아파 온다.

과연 자기들끼리 잘 살아 나을까? 편한 엄마의 노파심이었지. 다음 날부터 내가 이사 갈 집을 구하려 다녔다. 동생과 함께 먼지 지하실 4호선 산본역 근처부터 찾아 보았다.

그 곳이면 서울과 가깝고 절에 가는 것도 그리 멀지 않아 내게 꼭 맞는 장소이다. 동생과 함께 며칠을 다녔지만 역시 집은 구하기 힘들었다. 아니 집이 없었었다. 다음날 안산의 끝에서부터 찾아 보았다.

지하철 교단역 근처에 그나마 한두 집 나와 있었다. 산본보다. 전세 비용도 많이 저렴했다. 더 돌아볼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다른 집을 찾다가 또 동철 것 같아 적당한 집을 찾아 바로 계약했다.

너무 멀리 이사를 가서 절에 갈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걱정이요 서울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저장을 받을 것 같다. 한편 그동안 남편이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가까이 오게 되어 다행이다. 계약을 하고 돌아오니 숙제를 끝낸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제부터 이사 갈 준비를 해야겠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 이사 해 보니 너무 오래되어 같이 잡히지 않는다.

이사를 한다는 것은 뿌리를 뽑는 일이다. 우리 가족의 뿌리를 뽑아 이사 가는 곳에 옮겨 심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 된다. 나무도 뿌리를 뽑아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몸살이 걱정 된다. 나무도 뿌리를 뽑아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몸살이 걱정 된다. 나무도 뿌리를 뽑아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몸살이 걱정 된다.

우리가 간다는 것은 나무를 옮겨 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심은 곳에 뿌리를 잘 내리고 더욱더 심심하게 잘 살 수 있으리라 믿는다. 새로운 장소에 대한 호기심과 긴장감이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

우리 가족 모두 새로운 곳에 뿌리를 잘 내리고 더 잘 자라 사람들에게 시련한 그들을 만들어 주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익하고 멋진 나무가 되기를 기도해 본다.

- 박효정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테이프 보급



불교 총지중은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이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출시된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이프는 편안한 배경음악에 전문성우의 음성을 더빙해 누구나 듣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종조법설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원정 종조님의 사상과 유훈을 이땅에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불사일 것입니다.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이프구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불교 총지중 통리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교총지중통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전화 02)552-1080~3 / 팩스 02)552-1082

■ 제8회 경로법회(경북 울진)

“부처님 세상, 행복한 하루”



만다라 상을 수상한 총지사 공연팀



각 교구 지회장



관성사 장기지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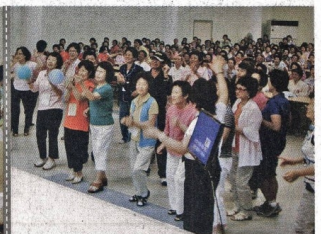
부채춤 공연



성화사 장기지랑



정각사 장기지랑



제 3회 2009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참가자 모집

2009년 10월 23일~26일 개최되는 제 3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에 동참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참가자는 외국인 불자들을 함께 템플 스테이 체험 및 강원도 일대 전통 사찰과 관광지를 관람하시게 되며, 대회 마지막 날 공연 관람과 만찬 참가권을 제공합니다.

■ 대회 일정

- 10월 23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 세미나 참석
- 23~24일 월정사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 참가
- 25일 고성 통일 전망대 관람
고성 건봉사 순례
설악산 및 신홍사
강릉 선교장 관람
강릉 참소리박물관 관람
강릉 현대호텔 송별 만찬

■ 참가 관련 사항

- 참가비: 20만원
(본인 부담 5만원, 중단 보조금 15만원)
- 참가인원: 20명
- 참가자격: 보행에 지장애 없는 일반불자

■ 신청 관련 사항

- 신청: 9월 14일~9월 30일/ 불교총지중 중앙교육원
(담당: 장동욱 교무 02-552-1080~3)
- 참가비 입금 계좌번호: 1002-930-828429
(예금주: 장동욱)

(대회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불 교 총 지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승 02)552-1082 www.chongji.or.kr